

OECD/DAC 고위관리회의(SLM) 결과

설경훈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은 4.14-15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원조위원회(DAC) 고위관리회의(SLM)에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아이티 지원, 개발재원 도전과제, MDG 이행 등 관련 DAC의 기여방안을 논의하였고, 동 회의의 주요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다.

I. 핵심 요지

가. 아이티 특별 패널 토론

아이티 정부대표, DAC 회원국, 주요 신흥공여국, 다자개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특별 패널에서는 아이티 지진 이후 그간 국제사회의 구호 및 재건 지원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아이티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참가국들은 아이티 지진이후 3차례의 재건복구회의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아이티의 지원을 위한 대응은 대체로 신속하고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평가하고, 향후 효과적인 지원의 실현을 위해 아이티 정부의 리더십, 공여국간 원조조화,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함

나. 녹색성장 전략(오찬 브리핑)

사무국측은 OECD 녹색성장 전략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 OECD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OECD 녹색성장 전략 중간보고서에 대한 개발측면의 기여를 요청함. 참가국들은 녹색 성장이 개발에 중요한 함의가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기여방안을 토론하였음. 생물다양성 및 관련 생태계 서비스를 개발협력에 반영토록 하는 정책 선언문을 회원국간 큰 이견 없이 채택함.

다. AAA Beginning Now 이행 보고

Ekhard DAC 의장은 AAA Beginning Now 3차 평가 결과, 공여국들의 이행 결과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HLF-4를 1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국가수준의 이행 노력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함.

라. 2010 – 2015 개발재원 도전 과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기후변화 등의 도전요소 하에서 MDG 목표시한인 2015년까지 개발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DAC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 개발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확대와 더불어 파리선언 및 아크라 행동계획 이행, 정책 일관성 제고 등 재원의 질적 측면이 중요함. 복잡 다기화되고 있는 글로벌 개발체제하에서 개발재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DAC은 원조분업 개선을 위한 객관적인 분석 및 분명한 지침 제공을 통해 다자 시스템의 일관성 제고 및 양자 개발협력 노력과의 조율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DAC의 비교우위 분야인 ODA 공약 이행 모니터링 및 개발재원의 종합적인 동향 파악을 통한 기여를 모색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 등과 협력하여 ODA, 민간분야 재원, 국내재원을 포괄하는 사용가능한 개발재원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을 추진해야 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additional” ODA의 의미와 관련, ODA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는데 DAC의 기후변화 마커 도입의 유용성을 평가하는 반면, 기후변화, 빈곤감소 등 글로벌 이슈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으로 개발재원과 기후변화 재원을 분리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마. MDG 가속화 방안

2010.9월 유엔 MDG 정상회의시 OECD 차원의 구체적인 기여를 모색하기 위해 MDGs 이행 평가 및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함.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빈곤감소,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MDG의 기여와 성과를 평가하고, 9월 정상회의에서는 상호책임성에 기반한 MDG 달성 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성공 사례를 적극 홍보하는 등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개발 모멘텀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MDG 이행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 이슈로 회원국들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분쟁·취약국가에 대한 지원확대 ▲ 원조효과성 제고 ▲ 기후변화 대응 지원 강화 ▲ 개발경험 공유 등 신흥공여국 및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제기함.

바. DAC Reflection Exercise 이행

DAC 의장은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환경 하에서 Reflection Exercise의 맨데이트에 따른 New more open, inclusive DAC으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회원국 의견 교환을 제안

뉴질랜드, 네덜란드, 호주 등 많은 회원국들은 Reflection Exercise 이후 Task Team 활동 등 DAC의 개혁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상이한 회원국 이해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에너지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New DAC"에 대한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하고 보다 혁신적 개혁을 촉구함.

회원국들은 New DAC이 추진해야할 우선순위 분야로 ▲기존 DAC의 중점 업무분야(통계, 평가, 원조효과)에서의 비교우위 강화 ▲홍보활동(communication) 제고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 ▲신흥 공여국, 민간분야 등 다양한 개발 주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글로벌 공공재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등을 강조함.

II. 관찰 및 건의

금번 SLM 논의를 통해 주요 개발 아젠다 대응을 위한 DAC의 우선순위, 전략적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9월 MDG 정상회의에 대한 DAC의 기여, New DAC 실현을 위한 DAC의 개혁, Post-HLF-4 논의 등 구체적인 이슈에 회원국간 이견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DAC의 최종 결과물 산출까지 면밀한 관찰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9월 MDG 정상회의 관련 ▲원조의 양적·질적 측면에 대한 균형된 논의 필요성 ▲공여국과 개도국 간 상호 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조세 등을 통한 국내재원 조달을 포함한 ODA 이외의 다양한 개발재원 발굴 필요성 ▲신흥공여국 및 민간 분야 역할 확대, 민관협력(PPP) 중요성 등이 강조된 바, 관련 우리 입장 수립시 적의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